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와 개선 과제

장인숙 | 남북하나재단 차장 | cool@nkrf.or.kr

## I. 머리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1997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sup>1)</sup>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기본금을 물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 대상자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sup>2)</sup>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 5)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었다.<sup>3)</sup>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확장이 주목된다. 지난 3월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습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하며, 지원 과목 수를 늘리는 등 교육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치과 진료비’ 지원금 인상과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1)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하였다.  
2) 관계 부처 합동,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접속일: 2024. 8. 1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접속일: 2024. 7. 31).

에 심리검사를 신규로 추가하고, 비급여 치료 및 간병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증대하였다.<sup>4)</sup>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총 34,183에 이른다. 이 중 사망·거주 불명·이민 등을 제외한 총 31,370명이 국내 거주 중이며 그중에서 20.4%인 6,405명이 서울시에 정착해 있다.<sup>5)</sup> 북한이탈주민에게 거주지는 남한사회를 체험하고 적응하는 ‘생활공간’이자,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참여와 통합의 ‘사회적 공간’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20%가 살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선호도 1순위 지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은 남북하나재단이 2024년 7월 발간한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과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sup>6)</sup>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는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실태’, ‘사회통합’을 변수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변수인 인구학적 특성은 거주지역의 구성적 특징을 밝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다.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분포를 통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을 도출한다. 두 번째 변수인 ‘경제활동 상태’는 생활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다. 근로 형태, 임금수준, 근속기간, 근로 시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역량을 진단할 것이다. 마지막 ‘사회통합’ 변수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정착 환경과 수준을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 지표이다.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 남한 생활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 향후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서울시의 거주 환경과 삶의 질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위 세 가지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자립 수준을 진단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 후 정착 수준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서울시 3월 25일자 보도자료 참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 돕는다... 생계·일자리·의료·교육 빈틈없이 지원’에서 치과 치료비 지원금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변경, 신규 전입 가구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를 월가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 등 지원을 확대를 발표했다. 서울시(<https://www.seoul.go.kr>, 접속일: 2024. 7. 31).

5) 광역시도별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규모 상위 3순위를 살펴보면 경기도(11,079명), 서울(6,405명), 인천(2,982) 순이다. 거주자 수는 경기도가 서울시의 약 2배 많지만, 경기도의 면적이 서울시의 16배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거주 밀집도가 훨씬 높다(자료: 서울시, 2024. 5. 31 기준).

6)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7;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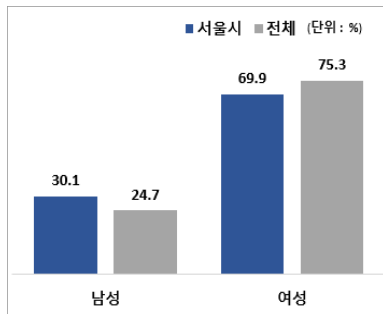
## II.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 1. 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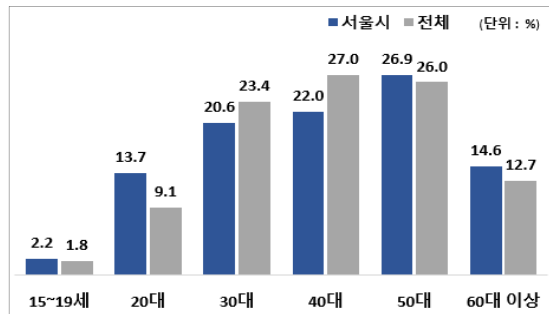
아래 [그림 1]에서 북한이탈주민 성별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모두 여성 비율이 남성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구조는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남성 비율은 30.1%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 비율 24.7%보다 5.4%p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남성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 입국자 비중이 전체 입국자의 40~50%대를 차지하던 2000년대 초반에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거주지가 배정되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방에 거주지를 배정받은 이후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 서울로 이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up>7)</sup>

또한 [그림 2]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5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가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50대가 26.9%로 가장 높고,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40대가 27.0%로 가장 높다. 한편 60대 이상은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14.6%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비율 12.7%보다 2.1%p 높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 북한이탈주민 수는 약 4천명에 이르며 그중 약 1/4인 1천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한다.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고령층은 정착 초기에 전입한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성별 거주 분포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거주 분포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68~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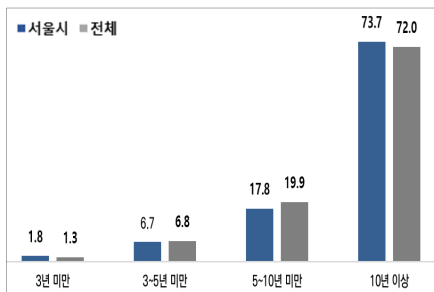
7)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국내 주거 현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래픽스」, 제9호, 4쪽, 2015. 11.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60대 이상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표 1>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10년 이상 거주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며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 하나센터 관계자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국내 입국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50~60대 연령층이 70~80대로 고령화하면서 고령층의 빈곤, 치매 등 심신의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정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심과 돌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sup>8)</sup>

거주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거주기간 분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3]에서 ‘10년 이상’이 7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17.8%, ‘3~5년 미만’이 6.7%, 3년 미만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대규모 입국 행렬이 이어지던 시기에 서울과 수도권에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거주지 배정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신규 전입자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희망하는 지역으로 전입이 가능하게 되자 서울시 전입자 비율이 높아졌다. <표 2>의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인원이 급감했던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 신규 입국자 555명 중 55.3%인 295명이 서울시로 전입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별 분포에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3년 미만’ 거주자 비율이 1.8%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1.3%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기간  
(단위: %)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남한 거주기간  
(단위: %)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5~19세	2.0	13.9	14.7	69.3
20대	5.7	9.4	30.0	54.9
30대	1.1	8.5	27.8	62.6
40대	1.4	6.8	12.8	79.0
50대	1.6	5.3	12.8	80.3
60대 이상	0.0	3.1	9.3	87.6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70쪽.

8)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서울북부 하나센터 현장방문 간담회 의견수렴 내용(2024. 3. 14).

〈표 2〉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047	229	63	67	196
서울	281	154	49	25	62

자료: 서울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 돕는다」, 보도자료, 2024. 3. 25.

## 2. 경제활동 실태

아래 〈그림 4〉에서 자립·자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경우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64.4%로 전체(63.4%)보다 1.0%p 높고, ‘고용률’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60.8%로 전체(60.5%)보다 0.3%p 높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양호한 이유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모두 남성이 약 15% 높다. 전체 탈북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4.6%로 여성(59.7%)보다 14.9%p 높고, ‘고용률’은 남성이 72.3%로 여성(56.6%)보다 15.7%p 높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 비율은 30.1%로 전체(24.7%)보다 5.4%p 높아 전반적인 경제활동 지표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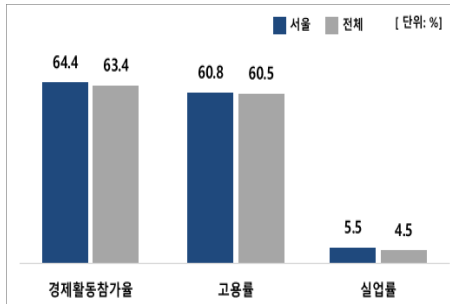
반면에 ‘실업률’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5.5%로 전체 실업률(4.5%)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sup>10)</sup> [그림 5]의 연령대별 실업률 분포에서 서울시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15~19세’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25.2%로 전체 탈북민 9.3%보다 15.9%p 높고, ‘60대 이상’은 서울시가 25.2%로 전체 탈북민 9.9%보다 15.3%p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한 서울시의 높은 실업률은 남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에서 성별 실업률 비교를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실업률의 차이는 0.8%이며, 전체 남성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 남성의 ‘실업률’

9)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높은 성별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4.1%로 여성(56.7%)보다 17.4%p 높고, 고용률은 남성이 72.1%로 여성(55.2%)보다 16.9%p 높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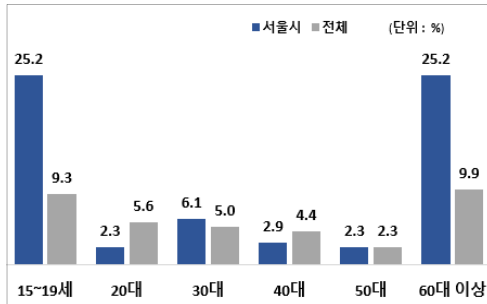
10) 고용률과 실업률은 아래 산식으로 산출하며, 분모가 다르므로 고용률이 증가하여도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frac{\text{취업자} + \text{실업자}}{\text{15세이상 인구}} \times 100$	$\frac{\text{취업자}}{\text{15세이상 인구}} \times 100$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주요 지표



[그림 5]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실업률 비교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43쪽, 107쪽.

<표 3> 전체 북한이탈주민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성별 실업률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4.5	3.1	5.1
서울	5.5	4.9	5.9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107쪽;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3, 113쪽.

차이는 1.8%p로 여성의 차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성과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월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은 238.1만원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45.7만원보다 7.6만원 낮고, 전체 국민의 300.7만원보다 62만원 낮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요인 중 하나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낮은 임금수준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4>에서 성별 임금 비교를 살펴보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16.8만원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210.0만원)보다 6.8만원 높다. 반면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보다 55.4만원 낮았다. <표 4>를 보면 전체 우리나라는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21.6만원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0만원 이상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해 남성 비율이 5.4%p나 높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수준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보다 월평균 임금수준이 6.8만원이 높고, 남성 비율이 5.4%p 높은데도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전체 남성 북한이탈주민보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임금이 55.4만원이나 낮기 때문이다.

<표 4> 전체 국민 - 전체 북한이탈주민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성별 임금 격차
전체 국민(A)	300.7	356.2	234.6	121.6
전체 북한이탈주민(B)	245.7	338.9	210.0	128.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C)	238.1	283.5	216.8	66.7
(A-B)	55.0	17.3	24.6	
(B-C)	7.6	55.4	-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3. 8);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55쪽;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52쪽.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낮은 임금수준은 구간별 월평균 임금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5>의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 구간별 및 성별 비교를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월평균 임금 최고 구간인 ‘300만원 이상’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구간이 40.4%로 1위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38.7%로 2위를 기록하였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구간은 서울시 남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보다 19.7%p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보다 2.8%p 높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월평균 임금은 낮은 상용직 비율도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내 지위(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표 5>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 구간별 및 성별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체 북한이탈주민	3.0	5.6	7.8	10.6	45.2	27.4	245.7
남자	1.0	3.4	2.6	3.3	30.8	58.4	338.9
여자	3.8	6.5	9.8	13.4	50.7	15.5	210.0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5.7	5.3	7.4	10.6	45.3	24.9	238.1
남자	2.0	8.0	4.5	4.1	40.4	38.7	283.5
여자	7.5	4.0	8.8	1.8	47.7	18.3	216.8

자료: 2023년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https://mdis.kostat.go.kr>).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내 지위(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계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북한이탈주민	81.4	56.6	12.0	12.7	18.6	17.8	0.9	100.0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80.2	52.8	15.4	11.9	19.8	19.8	-	100.0
성별	남성	74.7	46.6	8.9	19.2	25.3	-	100.0
	여성	83.1	56.2	18.9	8.1	16.9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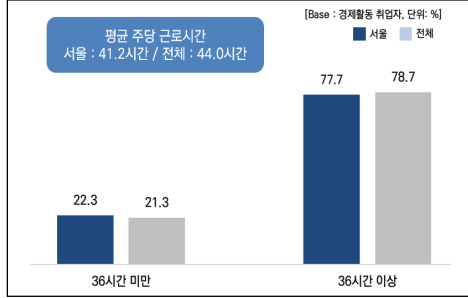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116쪽.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 비율은 서울시가 52.8%로 전체(56.6%)보다 3.8%p 낮다. 한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종사상 지위에서 남성의 상용직 비율이 여성보다 낮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상용직 근로자’가 56.2%를 차지하지만 남성은 46.6%로 여성보다 약 10%p 낮다. 반면에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은 일용직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19.2%를 차지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8.1%보다 2배 이상 높다. 서울시 거주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일용직 비중은 뒤에서 살펴볼 ‘재직 사업체’에서 건설업이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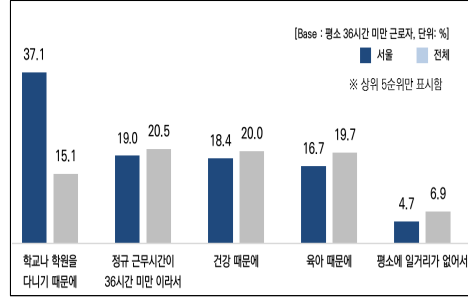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근로 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평소 주당 근로 시간’은 41.2시간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44.0시간보다 1주당 2.8시간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근로 시간이 적은 이유는 학교나 학원 등 공부를 병행하며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림 7]에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적게 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은 15.1%로 4순위인 것과 비교된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녀 모두 ‘학교나 학원에 다녀서’가 가장 높았다. [그림 8]에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이 44.1%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24.6%보다 19.5%p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 때문’이 26.2%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응답인 13.5%보다 12.7%p 높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준비하며 일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청장년층이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중·고령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림 9]에서 북한이탈

[그림 6] 북한이탈주민의 평소 주당 근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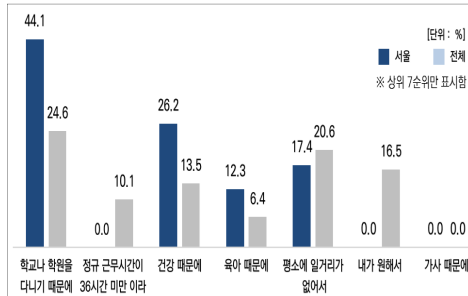


[그림 7] 북한이탈주민의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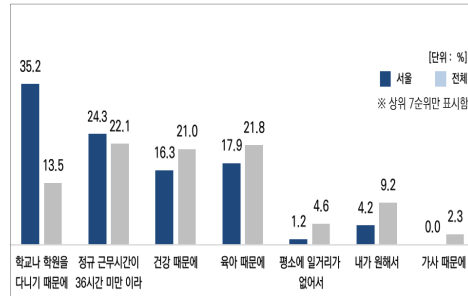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117~118쪽.

[그림 8]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남성)



[그림 9]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여성)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117~118쪽.

주민 여성의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이 35.2%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13.5%보다 22.0%p 높다. 반면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건강 때문에’가 16.3%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21.0%보다 4.7%p 낮다. 한편 ‘육아 때문에’의 응답률이 17.9%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21.8%보다 3.9%p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비교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육아 및 보육 지원의 효과인지 개인적인 가족 구성원 등에 따른 영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34.8개월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36.3개월보다 1.5개월 짧다. 앞서 살펴본 종사상 지위에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체보다 일용직과 임시직 비중이 높았던 영향으로 파악된다. <표 7>에서와 같이 근무기간은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별 근속기간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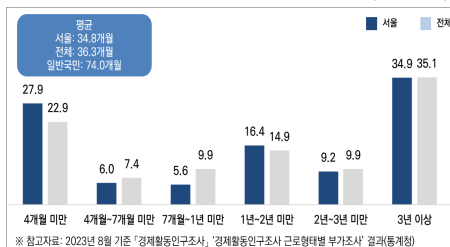
거주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	6.8
3~5년 미만	18.1
5~10년 미만	19.7
10년 이상	41.2

<표 8>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근속기간  
(단위: 개월)

연령대	근속기간
20대	13.3
30대	36.8
40대	34.3
50대	38.2
60대 이상	68.2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112쪽.

[그림 10] 북한이탈주민의 구간별 근속기간  
(단위: 개월)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112쪽.

<표 9>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근속기간 3년 이상  
(단위: %)

연령대	근속기간 3년 이상
20대	12.2
30대	42.6
40대	32.6
50대	34.3
60대 이상	74.8

구간별로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3년 이상' 근속이 34.9%로 가장 높고,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차이가 거의 없지만 2순위를 차지하는 '4개월 미만'의 경우가 27.9%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2.9%보다 5.0%p 높다. 서울시 탈북민의 1년 미만 근속했다는 응답자를 모두 합치면 39.5%를 차지한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가 더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석 결과다.

<표 10>의 '재직 사업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제조업(1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7%로 1위를 차지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재직 사업체 1위를 차지한 '제조업'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률은 7.1%를 차지하며 5순위를 기록하였다. 서울시와 지방의 산업기반시설과 일자리 환경의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표 10>에서와 같이 '재직 사업체 유형'에서 남녀 성별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여성은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4.2%로 가장 높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9%), '숙박 및 음식점업'(10.6%)이 상위 3순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은 '건설업'이 14.4%로 가장 높았고, '운수 및 창고업'(12.0%), '숙박 및 음식점업'(10.2%)이 상위 3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재직 사업체 유형(상위 10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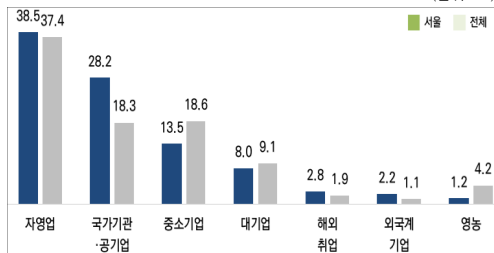
구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자원 및 임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전체 북한이탈주민	13.0	14.6	6.7	7.2	6.0	19.7	7.3	4.7	2.8	5.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17.7	10.5	9.6	8.8	7.5	7.1	6.8	6.3	5.2	4.9	
성별	남성	5.4	10.2	7.0	8.0	4.3	6.7	14.4	3.7	4.5	12.0
	여성	24.2	10.6	10.9	9.2	9.3	7.2	2.7	7.6	5.5	1.0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서울시편」, 2024, 110~111쪽.

[그림 11]의 ‘선호 직장 · 업종’에 대해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자영업’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북한이탈주민도 ‘자영업’이 37.4%로 가장 높아 자영업 선호도가 높다. 〈표 12〉의 최근 5년 자영업자(창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창업)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창업)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6%에서 2023년 17.8%로 3.2%p 증가하였다.<sup>11)</sup> 자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에서 장사 활동에 종사한 경험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들이 많고, 거주기간 증가로 자영업을 위한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여성들의 경우 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 가능한 일자리로 자영업 희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비해 경쟁과 개인주의 경향이 심한 조직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 일자리 대안으로 창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의 선호 직장 · 업종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56쪽.

〈표 11〉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자영업 선택

(단위: %)

연령대	자영업 (%)
20대	43.8
30대	39.4
40대	36.9
50대	40.6
60대 이상	34.4

11) 201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6.4%에 불과하였다.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2012, 31쪽.

〈표 12〉 최근 5년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자 수 변화

(단위: %, 명)

구 분	전체 북한이탈주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2019	2020	2021	2022	2023	2023
자영업자 비율	14.6	16.4	17.0	16.8	17.8	19.8
자영업자 수	2,401	2,589	2,880	3,012	3,323	771

자료: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민 정착실태조사』, 2019~2003년 보고서.

힘든 20~30대가 창업에 관심이 커지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2)</sup> 〈표 11〉 연령대별 자영업 선택 비율을 살펴보면 20대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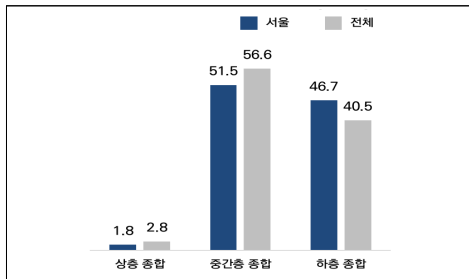
### 3. 사회통합

#### 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순위는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다. [그림 12]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응답은 ‘중간층’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층’(46.7%)이 2위를 차지하였고, ‘상층’은 1.8%로 제일 낮았다. ‘하층’이라는 응답률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전체(40.5%)보다 6.2%p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그림 13]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또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보다 낮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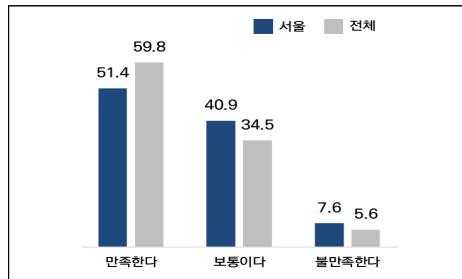
[그림 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그림 1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만족도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93~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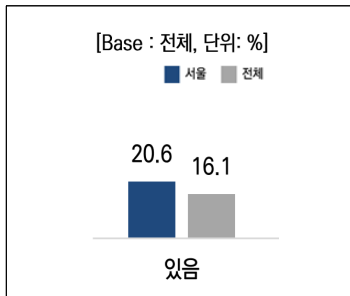
12) 문준환, 「북한이탈주민 창업에 관한 뉴스 데이터 토픽 모델링 분석: 2013~2021년까지 정부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북한연구』, 제20권3호, 2022, 3, 154쪽 참조.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1.4%로 전체(59.8%)보다 8.4%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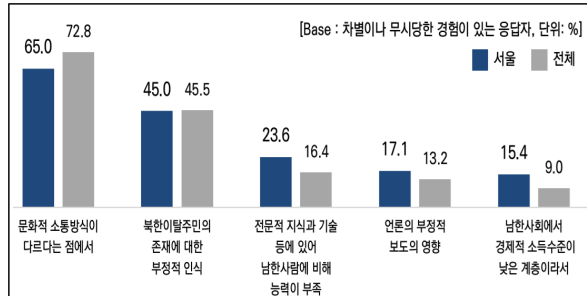
### 나. 차별/무시 경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20.6%로 전체(16.1%)보다 4.5%p 높았다. [그림 15]의 ‘차별 또는 무시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률 순위는 서울시 거주와 전체 북한이탈주민 응답이 동일하다.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6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45.0%), ‘전문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23.6%) 순으로 높았다. 이렇듯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응답보다 낮고 ‘전문 지식과 기술 등에 있어 남한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의 영향’과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서’에 대한 응답은 높았다.

[그림 14]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



[그림 15] 차별 또는 무시당한 이유(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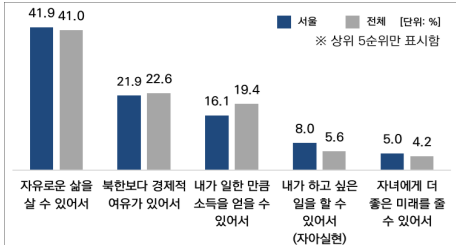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105쪽.

### 다. 남한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주관적인 정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남한 생활 만족도’에 대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한다’는 응답은 78.7%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9.3%보다 소폭 낮았다. 그러나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응답 순위 및 응답률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응답이 16.1%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응답(19.4%)보다 3.3%p 낮게 나타났다.<sup>13)</sup> <표 13>의 ‘만족 이유’와 <표 14>의 ‘불만족 이유’를

13) ‘남한 생활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16] 만족 이유(1순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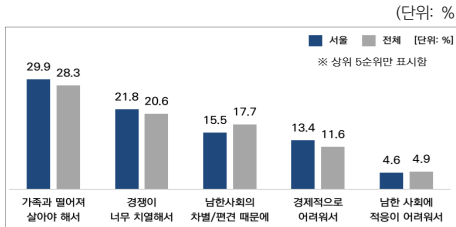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서울시편」, 2024, 84쪽.

<표 13> 연령대별 '만족 이유' 1위

항목	연령대	비율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60대 이상	58.1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50대	28.4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50대	22.1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10대	23.4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서	40대	11.2

[그림 17] 불만족 이유(1순위 응답)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서울시편」, 2024, 90쪽.

<표 14> '불만족' 항목별 1순위 응답 연령대

항목	연령대	비율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30대	42.3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10대	34.8
남한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에	60대 이상	29.9
경제적으로 어려워해서	20대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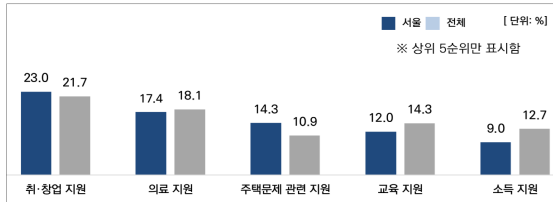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종합해 보면 10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만족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불만족하며, 20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50대는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만족하며, 60대 이상은 남한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 ‘취·창업지원(23.0%)’이 1위를 차지하였다.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무엇보다 ‘주택문제 관련 지원’ 순위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택문제 관련 지원’이 10.9%로 5순위를 차지한 반면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4.3%로 3순위를 기록하였다. <표 15>를 보면 거주기간 증가에 따라 ‘주택문제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문제 관련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은 ‘3년 미만’은 7.9%, ‘3~5년 미만’은 9.9%, ‘5~10년 미만’은 13.8%, ‘10년 이상’은 15.0%로 점차 증가한다.

[그림 18]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97쪽.

<표 15> 거주기간별 주택지원 욕구

(단위: %)

거주기간	주택지원 (%)
3년 미만	7.9
3~5년 미만	9.9
5~10년 미만	13.8
10년 이상	15.0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서 ‘주택문제 관련 지원’에 대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응답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황’ 통계에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아래 <표 16>의 ‘현 거주 주택 현황’을 보면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65.7%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51.9%보다 13.8%p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하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1.4%보다 15.8%p 낮다.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조사원들은 정착 기간이 오래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공간과 노후 된 임대주택의 불편 등을 호소하는 상담이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sup>14)</sup> 거주지 배정 정착 초기 서울시의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 북한이탈주민의 현 거주 주택 현황

(단위: %)

구분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 또는 임대아파트	타인 소유 집 (전·월세)	본인 소유 집 (자기 소유)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	친척 또는 친구집에서 함께 살고 있음	
전체 북한이탈주민	51.9	23.0	21.4	1.3	1.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65.7	24.8	5.6	2.7	0.8	
남한 거주 기간	3년 미만	89.3	5.5	0.0	0.0	0.0
	3~5년 미만	81.5	15.0	0.0	2.1	1.4
	5~10년 미만	69.3	15.5	2.6	8.9	1.1
	10년 이상	62.8	28.4	6.9	1.3	0.6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서울시편」, 2024, 81쪽.

14) 남북하나재단이 「202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현장 조사는 재단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202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현장 조사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 2024. 7. 23.

### III. 정책 시사점 및 개선 과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특성’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경제활동 실태’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자립 수준을 진단하였으며, ‘사회통합’을 변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 값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분석 결과와 뚜렷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연령대가 높은 점이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입국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50~60대 연령층이 70~80대로 고령화되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며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빈곤, 치매 등 심신의 건강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정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심과 돌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활동 상태’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분석 결과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월평균 임금은 7.6만원 낮고, 주당 근로 시간은 2.8시간 짧고, 근속기간은 1.5개월 짧았으며, 상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p 낮았다. 실업률은 1.0%p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경제활동 수준은 남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활동 상태를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6.8만원 높았으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55.4만원이나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근속기간은 여성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응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의 경우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보다 2.9개월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가 비율도 여성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여성보다 1.9%p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 남성보다 6.5%p 낮았다. 이상의 경제활동 상태 지표를 볼 때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전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부분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었다. 여성의 양육과 돌봄 지원,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역량교육 훈련 강화, 여성 심신의 건강 지원,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지원에 대한 관심 속에서 북한이탈주민 남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안정성 부분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서 ‘주택문제 관련 지원’ 항목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0.9%로 5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4.3%로 3순위를 기록하였다. ‘주택문제 관련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은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65.7%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51.9%보다 13.8%p 높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5.6%에 불과하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1.4%보다 15.8%p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 배정 정착 초기 서울시의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거나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착 기간이 오래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공간과 노후 된 임대주택의 불편 등을 호소하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택 배정은 최초 1회에 제한되어 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배정받기 위한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 그 과정도 어렵고, 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 하나센터 실무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불편에 대한 지속적인 호소를 받아들여 지자체에서 주거를 바꿔준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sup>15)</sup>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주택문제에 대한 지원 욕구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람이 아닌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주거지 변경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정착 환경과 수준을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인 ‘사회통합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전체 북한이탈주민보다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는 응답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15)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서울북부 하나센터 현장방문 간담회 의견수렴 내용(2024. 3. 14).

46.7%로 전체 40.5%보다 6.2%p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에서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51.4%로 전체(59.8%)보다 8.4%p 낮았다. 남한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78.7%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9.3%보다 0.6%p 낮게 나타났다. 한편 ‘차별·무시 당한 경험’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20.6%로 전체(16.1%)보다 4.5%p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 변수’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평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역(place)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회적응과 체험을 위한 ‘생활공간(life space)’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개인적인 역량강화의 노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 시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포용성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문준환, 「북한이탈주민 창업에 관한 뉴스 데이터 토픽 모델링 분석: 2013~2021년까지 정부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복합연구』, 제20권3호, 2022. 3.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2012.
- \_\_\_\_\_, 「북한이탈주민 국내 주거현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래픽스』, 제9호, 4쪽, 2015. 11.
- \_\_\_\_\_, 「북한이탈민 정착실태조사」, 2019;2020;2021;2022;2023.
-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3.
-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 \_\_\_\_\_,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지역보고서 서울시편」, 2024.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 5.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부가조사」, 2023.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
- 서울시(<https://www.seoul.go.kr>).
- 통일부(<https://www.unikorea.go.kr>).